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예수님

말씀 / 히브리서 2:5-18

요절 / 히브리서 2: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지난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로서 피조물인 천사와 비교가 되지 않는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하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탁월하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한 자세와 철학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예수님께서 맛보신 고난(5-10)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으로서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저자는 구원 역사가 완성된 이후 장차 올 세상에서 천사의 위치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구약 시대에는 천사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기도 하고, 무서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의식주와 같은 현실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유대인들은 장차 새로운 세상이 도래(到來)할 때, 인간은 천사들을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장차 올 세상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천사들이 한 역할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세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을 통해 완성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올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b-8a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원래 다윗 왕이 쓴 시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노래한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을 통해 예수님께서 겪으실 세 가지 일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을 그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인간이 겪는 고초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잠시 동안’이요 때가 되면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는데 실제로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히브리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은 것뿐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질서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지난 1장에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무시와 배척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혼자되는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고난과 죽음을 실패요, 끝이요,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영광의 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만유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

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요, 사명의 십자가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죄 없으셔서 죽음과도 무관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은 어떤 사상이나 가치로 미화해 보려고 해도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 소식에 ‘나라 망하는 날, 죽는 선비 하나 없어서야 되겠느냐!’ 한탄하며 자결한 매천 황현 선생도 독이 든 그릇에서 세 번 입술을 떼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죽음을 맛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맛보실 죽음은 천 번 이상 까무러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쓰디 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 올린 한 학생의 글을 읽고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18살 먹은 김동혁이라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은 말쑥꾸러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운전하는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가 운전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짐을 싣는 사이, 그는 엄마 운전석에 앉아 핸들도 돌리고, 경적도 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 버린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차가 경사진 곳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비명을 질렀고 엄마는 그 차가 멈추도록 몸을 날려 차를 막느라 그 자리에서 즉사(卽死-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하고 말았습니다. 잘못은 그 아이가 했는데 그 대가는 엄마가 감당했습니다. 엄마의 죽음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많은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다가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공고 2학년생인데 전기기사 자격증, 승강기기사 자격증 등, 여러 자격증을 따서 자립적인 인생을 살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죽음 때문에 그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자기 몸에서 나온 친 자식이기 때문에 몸을 날려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로마서 5: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성은 능력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대신 죽음을 맛보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탁월성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

의 사랑은 어떤 위인도, 어떤 천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크신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기만 하면 청춘이 되었는데 요새는 죽겠다는 소리가 나와야 청춘이 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도 취직이 안 되고, 죽어라고 일해도 언제 자립하게 될 지 기약이 없습니다. 헬조선, 대한민국 등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 분노하면서, 생명, 소망, 비전, 열정과 같은 청년다움을 잃어버리고 속으로는 절망, 불안, 회의, 염려, 무력감과 같은 죽음의 세력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천사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교수님, 선배가 구원을 줄 수 없고 청년 펀드 같은 그럴듯한 제도가 살 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천사는 함께 안타까워하며 위로해 줄 수는 있어도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천사가 우리를 대신하여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맛보지 않았고 맛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9절을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일생 머리 둘 곳 없이 사시면서 가진 것 없이 맨 땅에서 발버둥 쳐야 하는 흠 수저 인생들의 억울함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배신당하고 배척당하는 아픔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뱄음 당하는 수치를 맛보시고 조롱당하는 아픔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한 수치심과 무거운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일생 고난당하고 죽음까지 맛보게 되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크리스찬들은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왕따를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핍박을 받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는데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합당하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비록 힘들고 무거운 것이지만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부패할 것입니다. 심령이 녹슬어서 쓸모없게 됩니다. 레온 모리스(Leon Morris, 1914-2006)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은 우리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의 자질들이 연단되는 곳이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고난을 바른 자세로 겪는다면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하는 수단이 됨을 알게 된다.”**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장차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진리의 핵심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영광만을 얻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천사처럼 좀 고상하고, 우아하게 하고자 합니다. 전도하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먹고 소감을 쓰는 것, 성경다독 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구원 받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한 양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까지 죄 문제와 씨름하며 양육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반드시 ‘고난’이라는 이름의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억울해 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까지도 맛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을학기 저희들에게 임하는 어

떤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II. 예수님이 맛보신 고난을 통해 받은 은혜 (11-18)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영광을 얻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 우리 신자들은 다 한 근원인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과거 죄의 종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덕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완전한 것인지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한 형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형제 사이라고 해서 다 형제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애는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모여서 함께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함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심으로 형제의 사랑을 나누셨고, 함께 사탄과 싸우시므로 전우애를 불태우셨습니다.

그러면 큰 형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떤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실까요? 12,1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 다시 불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로써 세상 헛된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 된 성도들의 모임이요, 성도들은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1-13절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사귀를 갖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된 우리가 우리에게 두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때 큰 형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두신 예수님의 소원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형제요 자매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께서 왜 꼭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15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으심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범죄한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 땅으로 쫓겨나 흑암의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벧후 2:4, 유1:9).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대신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로마서 6: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함으로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사망권세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음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허무, 절망, 무의미 등의 사망권세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불의를 행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사망의 두려움에 얽매어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죽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저희가 내 마음속에 사망권세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이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역사임을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서 물리쳐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사망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압제에서 놓아 주고, 형제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시험도 고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同情-남의 어려움을 딱하고 가엾게 여김)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친히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말 못할 고민들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목자님에게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면 엄청 공감해주시며 잘 들어주시는 하지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이나 천사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도, 피할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 내면의 고통을 잘 이해하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은혜를 누리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천사보다 열등(劣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우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루기 위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멸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행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부활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7부 형제자매님들이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가을학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